

작가토크



- 성균관대 사서교육원 수료
-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 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졸
- 미술잡지 展示界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재직
-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
- 가나아트닷컴 총괄팀장
- 한국신지식인(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현, 김달진 미술연구소 소장

미술을 알려면 나를 찾아라

김 달 진

www.daljin.com





1997년 월간미술대상 특별부문 수상자 중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인간미술자료실'이라 불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가 있다. 바로 김달진이다.

'관람객은 속고 있다', '60여 개의 미술공모전, 그 실상과 허상', '오류많은 문예연감' 등의 글을 써 미술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는 한국 미술계에서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마당발이다.

미술자료수집?

그림을 잘 그리진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술전시를 소개하는 <월간 전시계>란 잡지사에서 기자로 근무를 하다 일을 하는 만큼 실력을 인정 못 받는 사회의 벽을 느꼈고 미술에 관한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자 전문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85년 성균관대에서 사서자격증을 얻었고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쌓고자 중앙대 예술대학원과 서울산업대 금속공예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서 가장 크게 얻었던 건 미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작가와 작품, 제작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애정이 가고 보는 눈이 진지해 졌죠.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던 겁니다.

집에서 반대와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원래 우표와 상표수집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동·서양 미술사를 연표대로 정리해 가는 일부터 시작했고 72년 열렸던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이란 전시를 보고나서 결정적으로 한국현대미술로 방향을 잡았지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시키다

"자기만족에서 끝내려"는 분도 계셨지만 당시 홍익대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이정성 관장님께서 훌륭한 일이라며 큰 위안을 주셨답니다. 훗날 저를 기억해 두시겠다는 이정성 관장님을 81년쯤인가 다시 찾아뵈던 날 현대미술관 자료실에 일용직으로 채용이 됐던 거죠.

제 인생의 좌표가 설정된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우편으로 오지 않는 자료들을 수집하러 나간다면 다들 놀려 나가는 줄 알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서울 시내 미술관을 헤집어 다니며 전시판플렛을 수집·자료정리 하다보니 자연스레 미술계 마당발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 문을 닫거나 새로 연 화랑이라든지 최근 활동하는 신진·작고 작가를 파악하게 되고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미술전시회 횡수 등을 수집할 수가 있답니다.

다. 때론 편집광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좋아 한 일이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큐레이터와 작가들의 문의 전화가 때론 힘이 되줍니다.

15년간 생활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급 공무원이라는 한계에 절망해 뛰쳐나와 96년부터 가나아트 센터로 직장을 옮겨 실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항상 제 일이라는게 누구보다 많은 작가와 작가 특성을 알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해도 화풍, 출신, 전시내력 등이 스쳐가죠. 여러 기획전의 도록과 명제표의 오류, 오기가 보이는데 기존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바로 잡는 시어머니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셈이죠. 연표와 도표는 글의 신빙성을 갖게 하거든요.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1백20편의 글을 발표했고 95년에 발간한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에는 꼼꼼한 연표와 수많은 참고 자료를 실고 있어 우리 미술사 연구에 필수 자료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 달진닷컴

2001년에 개소한 연구소에서는 현재 미술정보사업과 아트컨설팅을 하며 미술정보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연구소의 첫 작품인 서울아트가이드는 전시정보와 토막소식을 담은 소식지로 매월 3만부 정도 전국 미술관, 화랑, 평론가, 작가 등에게 배포되고 있고요. 물론 일반인들에게 미술정보소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어요. 소식지에 담아내지 못한 정보와 자료는 홈페이지에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 좀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을 알고 있어야

미술관 자료실에서 사서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 만들어 가고 개발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해 훨씬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회에 대한 공헌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달진닷컴에 실린 '이 한점의 자료'
① 42년전 홍익대 교수로 재직중인 서양화가 김한기 (49세) 교수와 미술평론가 이정성 (43세) 교수



② 이왕가미술관 전경 1941년